



대구종친회 정기총회에서 권순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종친회 정기총회

대구종친회(회장 권순호)는 지난 11월 10일 대구시 만촌동 소재 인터볼고 호텔 ‘데이디스홀’에서 족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순식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대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권순호 회장이 참석자 임원소개가 있었으며, 권영하 고문·권도혁 동정공과중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권순호 회장이 권중구 정

조공과친회 총무와 권순혁 대구청장년회 총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권두현 군(대구 청구高·1년) 외(外) 4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회의에 들어가 권기범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결산보고 후 권충강 감사의 감사보고,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기타 토의 후 화기에예한 가운데 폐회했다.

〈권혁세 기자〉

울산청장년회 제16차 정총



울산 청·정년회 10대 회장단 취임식을 하고 청년회 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18시 삼산컨벤션 2층에서 울산종친회를 비롯한 9개 친목회원 부부동반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권씨 울산청장년회 “제16차 정기총회 및 제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권응목 사무국장의 사회로 권오달 고문의 경과보고, 권명달 총무의 결산보고, 권혁구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청·정년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족친 권기, 권에진, 권순식, 이옥희 부인회원, 권응목 사무국장, 권명달 총무에게 감사패수여가 있었으며, 이어서 권혁환 회장의 이임사, 권오영 종친회장의 격려사 후 권창규 차기 회장

에게 선임패 전달과 회기이양에 이어 권창규 신입회장의 취임사를 하였다.

다음으로 4년 동안 수고한 권혁환 전회장에게 공로패 수여와 새로 선임된 차기 임원에게 선임장 및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새로 구성된 제10대 임원진은 회장(권창규), 부회장(권범식, 권영길, 권기석, 권영산, 권응목) 감사(권혁구), 사무국장(권영오), 총무(권명달)이 선임이 되었다.

2부 행사로는 만찬회 및 장기자랑과 오락, 행운권 추첨 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가 있었다.

〈권응목부회장〉

부산등산회 · 연제구종친회 산행

부산등산회(회장 김중원)와 연제구종친회(회장 권영현)는 지난 11월 26일 오전 10시, 24여명의 회원이 ‘엄광산’을 등반했다.

이날 30여분에 걸쳐 오솔길을 지나 12시(정오)에 ‘엄광산’의 정상

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고 이어 4시간 정도 산행을 한 후 하산해 노래방에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헤어졌다.

〈권영현 회장〉



서울산악회 등산하는 모습

서울산악회 수락산 등산 및 송년회

관정집 서울 산악회장은 지난 12월 18일 오전 10시 당고개역에서 회원50여명이 집결, 관정찬 등반대장의 인솔로 최초 수락산 공원을 경유 용굴암, 탕크바위 정상상을 거쳐 수락산 산행을 한 후 오후 3시경 송년회 회식 장소인 수락산역 인근 일심 본가로 모두모여 송년회 만찬으로 이어졌다.

이날 정섭회장은 송년 만찬에 앞서 급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소회원들에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 함께 우리 선조님의 보학(譜學)강의를 위해 준비해온 안동권씨 유래로부터 권문의 사시(權門 四始), 조선조 문과급제, 일가9봉군(一家九封君), 도원수 권율장군, 또한 세자(世次)배정, 15

개과, 항렬 등 짧은 세대 초점을 맞추어 권문(權門)의 후손으로써 애족사상(愛族思想)을 고취(鼓吹)시켰다. 이어 만찬 인사로 급년 신묘년 한해 건강한 몸으로 회원과 함께 송년을 보내며 다가오는 임진년(壬辰年) 흑룡의 해를 기해 더욱 건강한 몸으로 신년을 맞을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인사 한 후 끝으로 우리 산악회와 백만 권문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우리는 하나다’ 라는 축제 삼창을 제의 하였다. 이어 만찬으로 족친 간 화기에예한 분위기속 진한 혈족애(血族愛)를 나누며 2011년 한해를 멀리하면서 대망의 2012년 임진년을 기약하며 산화하였다.

〈권범준 본원기자〉

안동大 총동창회 올해 정총 및 체육대회



안동大 총동창회(회장 권숙동)는 지난 10월 22일 안동大 체육관에서 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와 체육대회(배구, 농볼) 등의 행사, 자랑스런 동문상, 공로상을 시상했다.

권숙동 회장(부호장공과 35世·대중원 부총재·고려종합자동차 정

비공장대표)은 안동사범학교를 7회로 졸업하고 10여년간 교육부장관을 지냈다.

안동大 총동창회는 안동사범본과, 강습과, 연수과, 안동사범병설 중학, 안동농업초급대, 안동大, 안동교육대부설양성소 및 연수원, 안동초급대, 안동대대학원, 안동대특수대학원 등의 99년도에 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권숙동 사장은 현 총동창회 7대 회장으로 동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

〈권혁세 기자〉

울산원연친목회 정기총회



울산원연친목회가 덕재별구이 식당에서 6차정총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17시 삼산동 덕재별구이 식당에서 원연친목회원 부부동반 약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정기총회 및 제7대 회장 이·취임식을 거행 하였다.

권중배 총무의 사회로 경과보고와 권태철재무의 결산보고, 권진진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서 권호영 회장의 이임사, 권영배 신입회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권호영 전회장에게 공로패 수여도 하였고 차기 임원은 회장(권영배), 부회장(권만호), 감사(권호영), 재무(권태철),총무(권응목)이 선임이 되었다.

회의를 마치고 2부행사로 장기자랑으로 행사를 마쳤다.

〈권응목총무〉



대구청장년 정기총회에서 권영수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구청장년회 2011년도 정총

대구청장년회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7시, 대구 프린스 호텔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상례행사 후 내빈소개에 이어서 권상주 회장의 이임사, 권영수 회장의 취임사, 권순호 대구 종친회장의 격

려사, 권영하 고문의 축사가 있었으며, 다음 권상주 직전회장, 권선미 재무, 권윤현 총무에게 공로패를, 권봉근 부회장, 권오희 이사에게 각 신임 위촉장을 전달하고 회의를 마치고 석식을 한 후 폐회했다.

〈권혁세 기자〉

지역단신		
	△능곡 회(회장 권기덕)는 지난 12월 9일 오후 7시, 안동시 옥동 ‘박가스 지하홀’에서 권영세 안동시장 등 회원 90여명이 참석해 신묘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그랜드홀’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묘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혁세 기자〉
	△안동시청 청무회(회장 권오엽)는 지난 12월 12일, 안동시 신안동 ‘M컨벤션	△경철장은 지난해 12월 19일자로 門출신, 지역경찰서(5개)장으로 신임 발령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두섭(53세·전남완도·추밀공과 34世·광산 경찰서장) ■권영만:(48세·전남무안·추밀공과 34世·함평경찰서장) ■권영하:(대구 북부 경찰서장) ■권오덕:(성주 경찰서장) ■권창만(함안 경찰서장)		
〈권오중 광주종친회 총무〉		

양촌선생 “주역천년록”

〈3면에 이어〉

이 시의 작자는 문왕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사는 부인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문왕의 덕화가 멀리까지 사람들에게 파급되었으며 깊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을 모두 상상해 볼 수 있고, 하늘의 이치가 사람의 마음에 있음도 믿을 수 있다. 아! 세상에서 교화를 시키기 가장 어려운 것이 부인이다. 처신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역경(逆境)이다. 부인이 역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화평하고 말이 진실된 것은, 성정(性情)의 바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왕의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남’·‘소남’의 교화가 지극한 까닭이다.

예컨대 “자구새와 같이 정이 돈독하면서도 분별이 있는 것으로 해서 후비의 성정이 바른 그 일단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주자가 특별히 <관자>의 나머지 뜻을 말한 것일 따름이다. 시인에 이르러서는 그 애달픔과 기쁨을 극도로 하면서도 모두 법도를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애달픔과 기쁨을 갖춘 것으로서 성정의 전체를 볼 수 있다. ‘집전’은 앞과 뒤가 서로 밝게 들어나 남김이 없다.

7

‘소남’의 <채반(采蘋)>에 대하여 ‘집전’은 “제사를 받드는 일을 읊은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몸소 누에치는 일이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주남’에 <갈담>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제사를 받드는 것”이나 ‘누에를 쳐서 옷을 짓는 것’은 일은 다르나 부녀자의 직책을 수행함은 동일하다.

비록 앞의 ‘제사를 받드는 것’이라는 설을 주장하여 말하더라도, ‘주남’의 <갈담>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순서가 <작소(鵲巢)>의 바로 다음 차례에 놓인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제사를 받드는 일은 다음 편의 <채반>에 나오니, <채반>은 아마도 몸소 누에치기를 하는 일을 읊은 것이 당연하다고도 한다. 그러나 만약 옷을 짓는 일을 읊은 것이라면 <갈담>과 같이 근면 겸소하고 헌물을 빨아 입어 차마 싫증을 내서 버리지 않는 뜻이 있어야 할 것이며, <칠월(七月)>과 같이 근면하고 삼가며 미리 대비하여 감히 편안히 놀지 않는 뜻이 있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 동정



▲ 권이 혁 세계결핵제로 운동본부 총재(대종원 명예총재)는 지난

12월 22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한 결핵어린이돕기 결핵의약품 지원식’을 갖고 의약품 5종, 3000명분을 북한에 보냈다.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10월 21일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

사기구 총회에서 석해균 선장에게 에프티미오스 미트로폴로스 IMO 사무총장이 ‘세계 최고 용감한 선원상’을 시상하는데 참석했다.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0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

한 산업자본 논란에 대해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아(산업자본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권택기 국회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동세무서 신축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했다.



▲ 11월 3일 권영세 안동시장이 미국 코헨대학교의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12월 1일 LG전자는 권희원(56)홀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장을

사장으로 발령했다. 3D TV를 성공적으로 출시. 평판 TV 시장에서 소니 제치고 세계2위로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LG그룹이 2일, 전지사업 강화를 위해 권영수 LG 디스플레이

사장을 LG화학(주)전지사업본부장으로 발령했다.



▲ 권영필 상지대학교 초빙교수가 7일 오후 3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8회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을 수상했다.

서울산악회 등산 겸 신년회 안내 (제207차)

- 일 시 : 2012년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집결장소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②번출구
- 등 산 지 : 이말산
- 신년회장소 : 고향집쌈밥(연신내역)02)389-9238)
- 등산코스 : 구파발역 ②번출구→이말산→진관사→코뿔소능선→은평경찰서→고향집쌈밥
- ▲ 회장(권정섭) : 016-799-9455 ▲ 총무(중우) : 011-418-4299
- ▲ 등반대장(정찬) : 011-392-6222
- ※ 준비물 : 간식, 음료수, 산행필수장비 지참
-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ankwonsmm>입니다.

2012년 1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정 섭

경기산악회 산행 안내(제55차)

- 일 시 : 2012년 1월 14일(매월 2째 토요일) 오전 10시
- 집결장소 : 4호선 과천청사역 3번출구 앞
- 등 산 지 : 관악산
- 등산코스 : 과천청사역→6봉→인덕원

- ▲ 회장(권 철) : 011-745-5332
- ▲ 총무(권오홍) : 011-719-4048
- ▲ 등반대장(권정노) : 010-3898-6972
- ▲ 사무실 : 서울 종로구 효제동 151번지(02)745-5334

2012년 1월 1일
안동권씨경기산악회 회장 권 철(영철)